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엄단

'확진자 이송' SNS 유포 30대 어제 경찰 조사 경찰, 고의성 확인시 업무방해 혐의 형사 처벌

제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최초로 퍼뜨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3일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36)씨가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제주동부경찰서로 찾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로 지목된 글을 자신이 맨처음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어떤 이유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 또 허위인줄 알고서도 고의로 가짜뉴스를

올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지역 한 종합 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이송됐다'는 가짜뉴스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2일 확인했다.

제주도는 이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방역 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자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초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포된 글에는 '방금 제주지역 한 병원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송됐다고 한다. 아직 뉴스에는 안 나온 것 같다.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A씨가 고의로 가짜뉴스를 올린 것이라면 병원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지난 설 연휴에도 도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적이 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난무하자 각 지방청에 유언비어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지정해 운영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경찰은 특정 감염자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와 같은 병원 업무 방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는 한편, 사회적 혼란을 크게 가중할만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해당 글을 인터넷에서 차단·삭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제주 여행 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중국인의 정확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이 중국인이 도내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금융당국과 공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다. 김현석기자

주차 전부터 스트레스 주는 주차장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글 폭주 한쪽 방향서만 진입 가능... 교통체증 원인 야기

제주시 동문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 이용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한 동문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오래된 표지판이 계속 설치돼 있어 입구·출구가 혼동된다는 내용과 한쪽 방향에서만 주차장 입구로 진입이 가능한 탓에 교통체증이 극심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인근 상인 박모(58·여)씨는 "차가 물리는 저녁이나 주말이면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한 차들이 양옆으로 즐비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한라산 방향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들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10월 사업비 30억원(국비 18억원·지방비 12억원)을 투입해 기존 주차공간 212면에서 56대를 추가로

확장하는 동문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

당초 공사는 지난해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사 부지에 기존 공영주차장 건물 허부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와 보완을 거쳐 지난달에 완료·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된 표지판이 제거되지 않고 한쪽에 서만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입구 등의 문제로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설계 시 양방향에서 주차장 입구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완공된 이후 한라산 방향에서 입구로 진입하려면 크게 돌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차지경철단에 주차장 입구 진입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시설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말쯤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또한 출·입구 방향에 혼란을 주는 오래된 표지판은 현재 내용을 볼 수 없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물질하던 80대 해녀 숨져

물질에 나선 8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판포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A(81)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동료 해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상민기자



신종 코로나 예방 수업 중인 어린이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제주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제주시 키즈빌어린이집 원아들이 마스크를 쓰고 감염예방 수업을 진지한 표정으로 받고 있다. 강희민기자

'무비자 중단 조치 지지' 제주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외 확산에 따른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는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속고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판단해 이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경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까지 발병해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번 제주도정이 도민 건강과 안전은 물론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중국인 입국금지 건의'는 고뇌의 결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향후 신종 코로나가 퇴치 될 때까지 연합회에서는 제주도정에 적극 협조하고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발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소독과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백유희기자

■ 평촌타이 중영사 '신종 코로나' 기자회견 "무사증 중단 이해... 제주도와의 협력"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제주중영사관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평촌타이 주제주중영사관은 3일 영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방역을 맡고 있는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촌타이 총영사는 "현재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우한 출신 중국인은 9명으로 이중 3명은 오늘 중국

으로 돌아갔다"며 "남은 6명 가운데 2명은 13일 돌아가며, 나머지 4명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의를 하면 즉각 제주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도 주제주중영사관이 제주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사증 일시 중단에 대해서는 "제

주도의 결정을 이해한다. 우리도 책임 있는 태도로 이번 사태를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반중감정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제주 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도 "제주에서는 우호인사와 단체가 응원의 메시지와 물품을 보내주는 등 격려 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온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평촌타이 총영사는 "속속 확진자가 암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중국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예방·억제·치료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제주도 교통문화지수 2계단 하락 '전국 3위'

국토부 2019년 조사 결과

제주도의 교통문화지수가 1년새 2계단 하락했지만 상위권을 유지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교통문화지수는 1위를 기록한 광주광역시(84.03점)와 2위 세종특별자치시(82.89점)에 이어 82.62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의 교통문화지수는 2016년 15위로 바닥권을 기록하다가 2017년 3위로 급상승한 뒤 2018년 83.37점

으로 단숨에 1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1년새 2단계 미끄러지며 3위로 내려 앉았다. 특히 2018년엔 교통안전실태도 광주(10.11)에 이어 10.08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제주도가 3위로 하락한 것은 인구를 30만명 이상과 이하로 나눈 그룹별 교통문화지수 결과 제주시가 30만명 이상 29개 시에서 17위를 기록하며 'C'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2018년에 이어 'A' 등급을 유지했다. 조상훈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 ▶ 잡초의 경감
-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 높은 저장성
-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 페르카
-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 강력한 라이프효과
- ▶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영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745-8900, HP : 010-9258-7508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